

충청남도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전략

이인배 · 권미정 · 조소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연구원
iblee@cni.re.kr/mwhts@cni.re.kr/sojin8028@cni.re.kr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국내외의 해양관광 신산업에 대한 환경 변화와 동향을 검토하고, 충남의 해양관광여건과 실태 분석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함. 이를 바탕으로 충남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별 육성전략과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
2. 해양관광 신산업 관련 정책동향
3. 충남 해양관광여건 실태분석과 과제
4.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별 육성전략

요 약

- 해양관광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관련부처와의 연계 및 협업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연안 시·군에서도 이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정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함
- 해양관광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략에 대한 유형별 산업지원 정책은 분야별로 매우 다양함. 이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각각의 산업별로 모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해양관광 신산업을 해양치유산업, 해양생태관광산업, 마리나산업, 크루즈산업,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등 5가지로 제시함. 개별 사업에 대한 융복합화를 통하여 특화된 해양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해야 함
- 연안의 각 시군들은 각각 산업별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시·군 간에도 서로 연결하여 관련성을 가지고 클러스터화 되거나 벨트로 구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앞에서 제안된 해양관광 신산업들을 충남형의 특화산업으로 발굴·육성하도록 정책적 전략모색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해양관광 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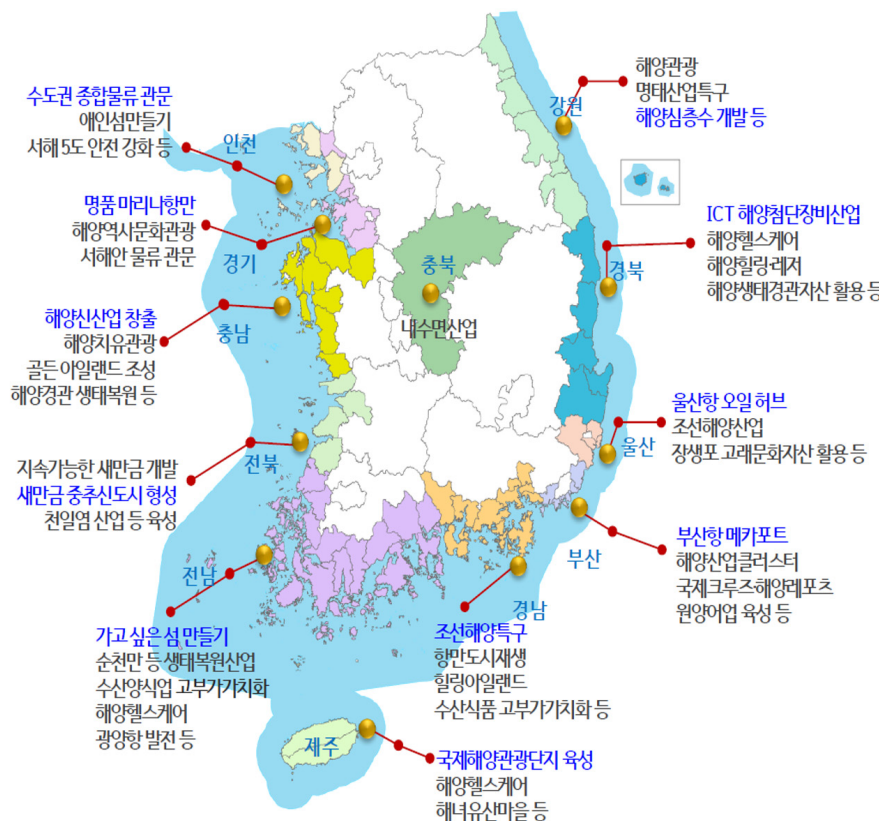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

1. 배경과 필요성

-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약 1,840조에서 2030년에 약 3,680조로 해양경제의 부가가치 규모가 2배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도 해양경제의 미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의 중앙정부에서도 해양신산업으로서 새로운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이다.
-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육상관광에서 해양레저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화하여 해양레저는 고부가가치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은 다양화, 고도화 되어 해양레저기반시설과 해양레저장비생산,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면서 요트·보트 등 수상레저와 해중레저, 크루즈관광 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 전국적인 지역별 해양 특화 추진계획에서 충남은 해양신산업의 창출특화 지역으로서 해양치유관광산업과 골드아일랜드, 해양경관생태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해양신산업의 방향을 해양레저관광·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거점 등의 세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이 출현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해양헬스케어산업이다. 이에 충남에서는 해양머드산업 및 해양치유 등을 해양신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로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을 해양신산업의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계획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크루즈, 마리나 등 몇 개의 굵직한 신산업을 발굴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 충청남도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이를 기존 충남의 해양관광에 접목시킴으로써 미래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을 위한 발전 과제로 도출하고자 한다.
- 충남의 서해안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잠재력의 해양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변화하는 해양신산업분야의 성장가치를 연계하여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료 : 해양수산부(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자료집, 해양수산부문의 지역연계를 통한 연안 해양 발전구상.

[그림 1] 전국 해양신산업 관련 지정현황

1.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충남의 추진현황

- 정부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이라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을 위한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추진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해양레저관광 부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2019년 5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①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②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③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산업으로 사계절 해양치유산업, 마리나산업, 크루즈산업, 수중레저산업 등 육성, ④ 교육·체험 확대를 통한 친수문화 정착 등을 통해 해양관광분야에서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다.
- 이상과 같이 국내외 해양관광에 대한 시장과 정책동향을 살펴볼 때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은 충남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중앙부처 연계 해양관광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7.12.18)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치유 :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관광과 치유가 융·복합된 해양치유 산업육성을 통해 어촌지역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마리나 : 연안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복합해양레저산업인 마리나 산업을 육성 •크루즈 : 크루즈 시장 다변화와 중국 단체 관광객을 개별 관광객으로 전환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어촌지역 소득증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관광 : 10대 어촌테마 마을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등급 제를 통한 관광 만족도 제고 추진 •해수욕장 :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입수제한 기간 완화, 백사장 무선 동력기구 허가 등 규제개선을 통한 사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
	해양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레저 : 신규창업 · 투자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을 고려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마련 •해양생태관광 : 갯벌 등 해양자원 활용 해양생태마을을 시범조성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특성화 추진 •섬 관광 : '바다로'를 연중 이용권으로 확대하고, 섬 관광지의 체험 · 숙박과 여객선 운임을 연계하는 할인 프로그램을 개발·홍보
	해양관광 대중화를 위한 저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복지 : 사회적 약자의 레저관광 향유를 위한 함께해 사업 추진 •체험교실 확대 : 친수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양레저 체험, 생존수영 등 해양레저 체험교실 확대 •대회 내실화 : 국민적 관심 제고할 수 있는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국내 해양레포츠 대회를 내실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018.7.11)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 :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 마리나와 여항을 중점 개발하여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 마리나와 상호 연계하여 마리나 계류선석을 확대 •크루즈 산업 체질개선 :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크루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지원 :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중레저 여건을 개선 •사계절 해양치유 산업 육성 : 소금, 해송, 진흙(머드) 등 천연 해양자원 치유 효능 검증 및 사업화 모델 개발을 통하여 해양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
	해양레저관광 하드·소프트웨어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 여항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 •신규 콘텐츠 개발 : 어촌 문화자원과 어업유산 발굴·조사 어촌 특화콘텐츠를 활용한 유(U)자형 바다관광 향로를 개발 •해양레저 체험관광거점 조성 : 해양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하고 섬, 해수욕장 등 육·해상 해양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상관광길(바다로(路))를 개발 •제도개편 :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바닷가 습지 등을 활용한 해양 생태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활동 강화 : 해양레저스포츠기구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확대 •안전한 환경 조성 : 생존수영교실 운영 확대, 낚시배 안전기준 강화 •해양교육·문화 확산 :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교육관 등 해양교육 인프라를 확충, 소외계층 대상 '함께해(海)' 사업 추진

[표 1] 중앙부처 연계 해양관광 관련 주요내용(계속)

구분	주요내용	
제3차 확대 국가관광전략 회의 (2019. 4. 2)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중	해양관광 권역별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레저관광 : 거점 해역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 •해양치유 거점 : 우수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사계절 해양관광 거점 조성 •K-Ocean Route : 해양레저관광 거점, 어촌뉴딜 사업지, 거점 마리나, 해양치유 시설 등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닷길 개발
	크루즈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관광 다변화 : 일본, 대만 및 유럽 주요시장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방한 크루즈 유치 확대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 : 일본과 러시아 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다양한 항로의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항 운항 확대
	섬 관광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가는 섬 : 접안·안전시설 등 인프라 개선, 준공영제·바다로 등 운항 지원, 마리나 이용 등 이동수단 다양화로 섬 접근성 개선 •볼거리·놀거리 : 섬별 테마 선정 및 기초시설 조성 지원, 특화 관광 상품 개발, 유무인도 섬 연계 등 추진 •미식·휴식 : 섬 특화 수산물 홍보, 유휴주택 활용 주민쉼터 등 조성 •홍보·마케팅 : '제1회 섬의 날'(19.8.8.) 기념 행사' 추진 및 섬 관광 관련 종합정보 제공, 섬 관광 활성화 계획 마련('19년)
경제활력대책회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2019.5.19.)	[인프라]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대 권역별 특성화 및 거점 조성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 •해양 관광길 개발 : K-Ocean Route
	[콘텐츠] 체험, 체류형 관광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체험관광 콘텐츠 내실화 •우수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문화 조성
	[산업] 해양레저관광핵심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계절 해양치유산업 육성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 교육체험을 통한 친수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을 통한 친수문화 습득 •체험을 통한 친수문화 체화 •친수문화 확산 기반 조성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최일선(2019),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2. 국내외 해양관광 신산업 관련 사례와 특성

- 국내외적으로 해양관광 신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 보았다.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탈라소테라피(해양요법, 해양치유)라는 예방 및 치료적 목적으로 프랑스 내 해양요법시설이 있으며, 해양요법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해양레저스포츠는 뉴질랜드의 아벨테즈먼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해양레포츠관광을 누릴 수 있는데, 크루즈, 수상 택시, 카약, 헬리 투어, 쌍동선 항해 등 해양레저의 여행상품을 이용해 물, 육지 또는 하늘에서 국립공원을 탐방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다.
- 크루즈산업은 세계관광기구(UN WTO)에서 21세기에 성장성이 가장 높은 관광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독일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Carnival Corporation은 유럽과 아시아를 운행하는 자사 크루즈선(AIDA Cruises, Costa Asia 등) 등을 크루즈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 마리나산업은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베이사이드 마리나에 계류시설, 보트 수리 야드, 클럽하우스 등의 마리나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쇼핑몰 아울렛, 레스토랑 등의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어 마리나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양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본최대의 복합시설로 자리 잡았다.
- 해양생태관광은 홍콩의 마이포 습지 자연보호지구(Mai Po Natural Reserve)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장을 매입하여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마이포 자연보호구를 포함한 Inner Deep Bay 지역은 1995년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여기는 자연보호구의 입장료를 습지공원에 비해 비싸게 설정하고, 탐방객도 관람인원 제한함으로써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1. 충남 해양관광 환경여건과 실태분석

1) 국내와 충남의 해양관광 환경여건

- 국내 해양레저관광은 서핑, 수중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 접근성 개선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가에서는 해양레저관광 4대 전략 중 핵심산업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①사계절 해양 치유산업 육성, ②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③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④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 충남의 연안은 항만·어항과 수산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뿐만 아니라 유·무인 도서와 갯벌 및 습지 등 해양생태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리고 충남의 연안지역에는 여러 개의 산업 단지와 무역항 및 연안항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 보령의 기존 마리나와 당진의 거점마리나항을 중심으로 7개의 마리나항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평택·당진항에 다기능 복합항만이 조성되고, 보령신항을 신항만예정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산항에는 중국 룡안항을 연결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 되었으나 아직 개항은 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보령신항에 크루즈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해양레저스포츠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을 통하여 수중레저업이나 수상레저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낚시선박운영업 등과 유람선업 등이 증가하고 있다.

2) 충남의 해양관광 신산업 관련 정책 실태분석

- 대통령의 2019년 전국경제 투어에서 충청남도는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해양생태복원, 해양레저관광 등의 분야에 새로운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사업은 부남호 역간척 해양생태 복원,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의 분야이다.
- 첫째,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복원으로 해수유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형 해양신산업으로써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원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부남호 인근에 위치해 있는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를 새로운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 둘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가로림만이 생물 다양성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자연유산으로 해양보호구역에 지정되어 국내유일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셋째,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은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여 치유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태안군 달산포 일원에는 해양치유센터, 곶솔림 치유공간, 스포츠 재활센터 등의 거점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자료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그림 2]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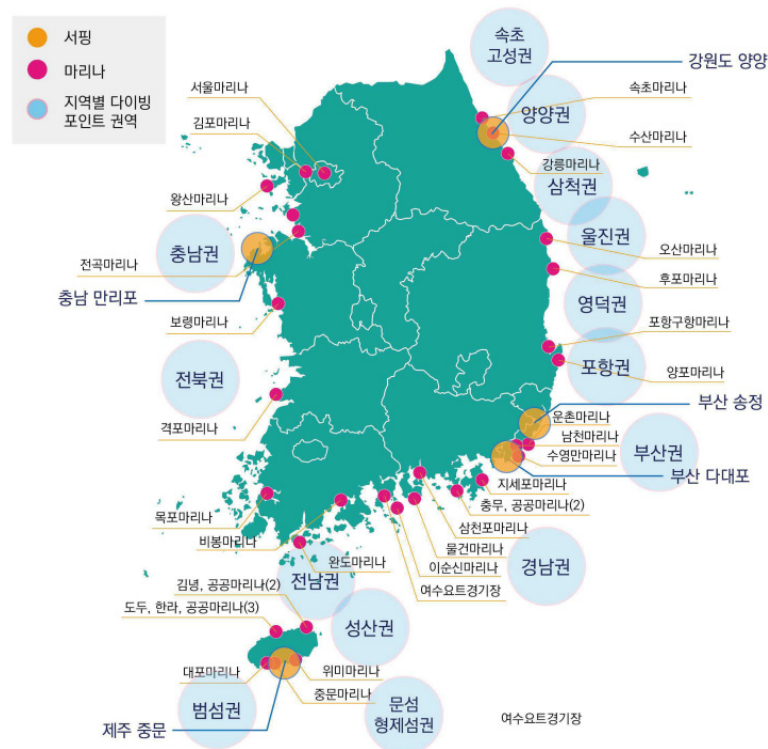
- 넷째, 해양바이오는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폴리텍대학, 국립생태원 등 주요 바이오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바이오와 해양에너지 산업은 그 자체로서의 신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관광자원으로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해양생태 시설과 자원 등을 연결하여 해양생태관광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그림 3]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감도

- 다섯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명소화는 민간투자 활용을 통해 거점형 관광단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안면도 관광지와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투자선도 지구 조성을 통한 대명리조트 해양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당진 왜목 마리나 개발을 통해 호텔, 크루즈 아카데미, 상가시설, 프리미엄 아울렛, 한방클리닉 센터 등 다양한 해양 레저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형 레저체험공간과 테마형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연안크루즈와 최서단 격렬비열도를 탐방하는 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해양레저 관광 신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만리포를 대상으로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 몽산포와 무창포 가족형 레저·힐링 공간을 위한 바닷가 공원, 휴양단지 조성, 해안과 역사 문화체험(학암포~방포) 섬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해양레저가 뜬다 KMI 인포그래픽 제 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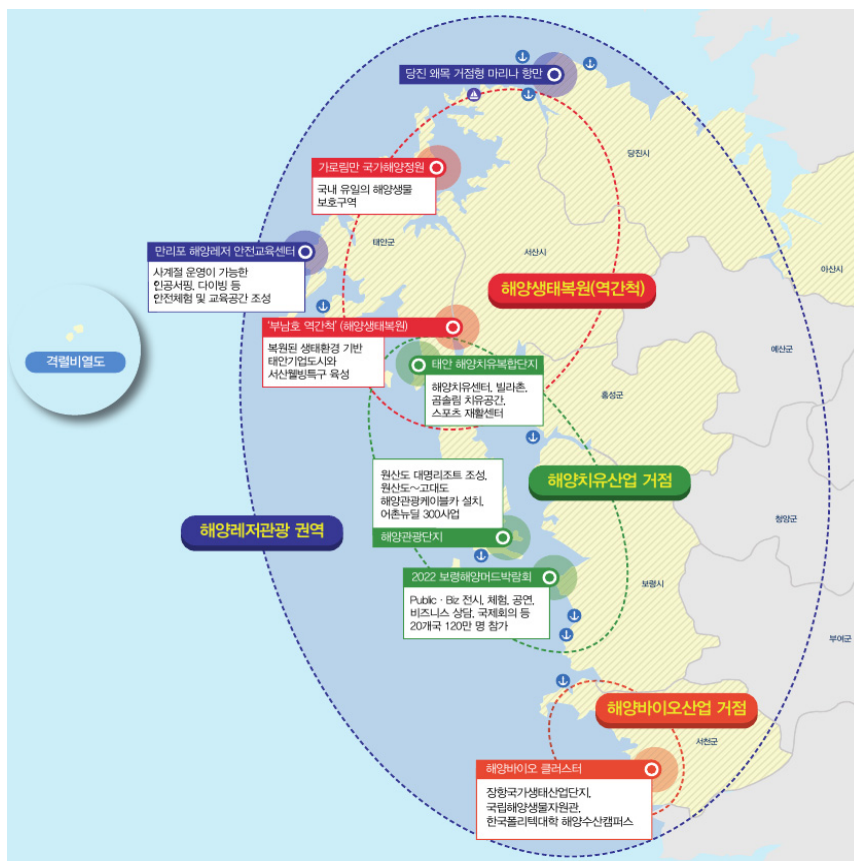
[그림 4] 해양레저 주요 지역별 현황(2019)

3)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 관련 활성화의 정책과제 도출

-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해양관광 관련 환경여건 분석과 충남 해양관광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이들 두 가지 분석에 의한 도출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거시적 해양관광 신산업 트렌드 분석의 도출과제는 ①해양경제 가치와 해양관광 수요의 증대에 따른 고부가가치화, ②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하고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강화, ③사계절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신산업화, ④선진국형 마 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⑤충남 서해안에 크루즈터미널과 항로개설로 마리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⑥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지원시책 추진 등이 있다.
- 둘째, 국내 및 충남의 해양관광 여건분석 도출과제는 ①기존 수산업과 항만·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산업화로 부가가치 제고, ②마리나와 크루즈, 해양레저스포츠 등 중앙부처

사업의 능동적 대처, ③연안 해양생태, 문화·여가자원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성화, ④충남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한 해양치유관광 산업의 특화 등이 있다.

- 셋째, 충남 해양신산업 추진현황 분석의 도출과제는 ①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분야에 해양관광산업을 전략적 육성사업으로 추진, ②부남호 해양생태복원 사업을 자연친화형 해양관광자원화, ③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국제수준의 해양생태 관광거점 조성 및 명소화, ④태안 해양치유 복합단지 시범센터의 거점지 조성 및 해양치유벨트 구축, ⑤서천 국립생태원, 생태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관광산업화, ⑥해양레저관광과 콘텐츠를 통한 사계절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 ⑦마리나와 크루즈관광을 위한 기반과 관광수용태세 구축 등이 있다.
- 넷째, 충남 해양수산 및 관광정책 동향의 도출과제는 충남 연안 시군의 해양수산 및 관광정책과 연계한 특색 있는 해양관광 신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그림 5]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종합구상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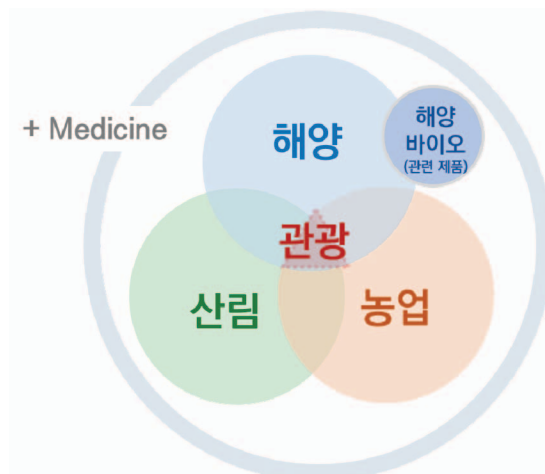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별 육성전략

1. 해양치유산업

-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에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전략은 세 가지로 첫째, 충남의 융복합 해양 치유산업의 육성이다. 치유관광으로써 웰니스 관광과 메디컬 투어리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접근하고, 충남의 연안 6개 시군을 포지셔닝하고, 시군 특성별로 해양치유산업이 연계 발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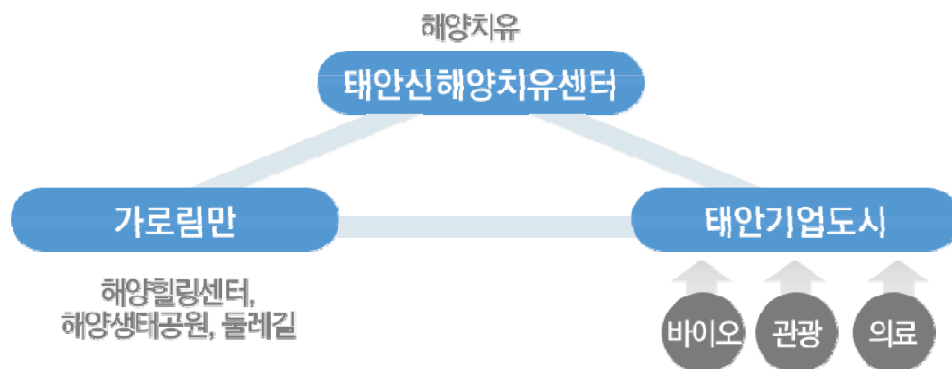
치유관광 개념

- 기저 질환자지만 충분히 일상 생활이 가능 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치유, 의료, 투어를 함께하는 가족 중심의 여행 (재활, 웰스프로모션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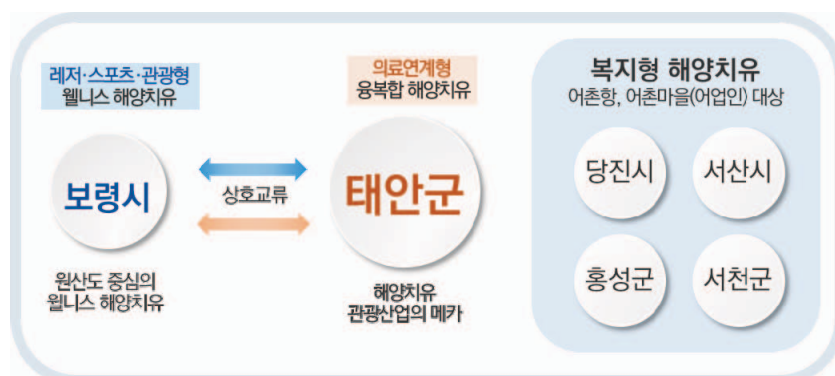
[그림 6] 충청남도 해양치유산업 치유관광 접근 개념도

- 둘째, 해양치유 거점지의 특화 육성이다. 태안의 해양치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치유센터와 의료기관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안기업도시에 환경마이스산업단지의 바이오, 관광, 의료 등 연계를 추진하여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태안기업도시, 가로림만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현재 보령시에서도 해양헬스케어를 바탕으로 한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양치유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7] 태안 해양치유 거점 육성 전략

- 셋째, 해양치유 참여 시 고려요소와 충남에 필요한 해양치유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치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며, 이에 따라 태안군을 중심으로 해양치유 및 휴양 관련 인프라 조성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당진 등을 연계하는 해양치유 자원의 발굴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해양치유와 관련된 민간 사업체 등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



[그림 8] 충청남도 해양치유산업 연계 육성 전략

2. 해양생태관광산업

- 충남 해양생태관광산업의 육성전략은 두 가지로 첫째, 해양바이오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이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원과 해양생태 자원 중심에서 이제는 해양바이오 산업과 해양에너지 등을 융복합하여 해양생태관광산업 상품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 그리고,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의 복원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부남호 인근에 위치해 있는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를 새로운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국내유일 해양정원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와 환경도 보전하고, 지역주민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둘째,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서는 기존의 해양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해양 생태관광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의 다양성 및 자원 활용성에 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해양바이오 산업단지와 해양생태자원을 연계하는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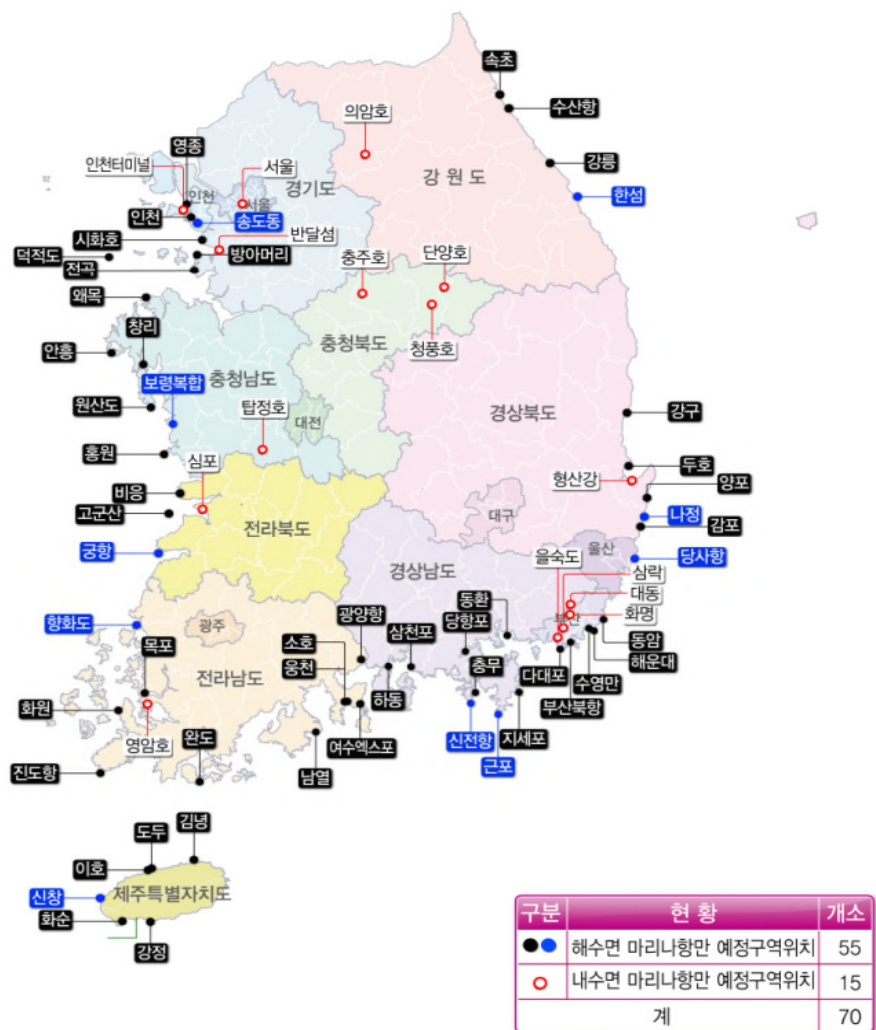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그림 9]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구상도

3. 마리아나 산업

- 충남 마리아나산업의 육성전략은 세 가지로 첫째, 기존 서해 요트아일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 충남의 마리아나항만 대상지와 어촌 마리아나역 우선 추진지역 및 어촌 마리아나역 중장기 추진지역 등을 거점 마리아나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요트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마리아나항만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 해양수산부(2020), 제 2차 마리아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그림 10] 전국 마리아나항만 예정구역 위치도(2020)

- 둘째로, 마리나 선박 건조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이다. 충청남도에 레저용 선박과 같이 특정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레저선박을 빌려주거나 대신 운항·운송해주는 사업과 리조트, 펜션 등 연계사업, 별도 주요 마리나항만 내 운항서비스사업도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충남의 중소조선업체 역량 강화 및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로의 전환으로 선박건조사업체의 육성도 추진해야 한다.
- 셋째, 충남에서 마리나산업의 활성화는 산업의 고도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양질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당진 왜목의 광역단위 거점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보령-원산도-태안 연육교 주변에도 광역단위 거점 마리나 시설을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안 연안시군의 적정 입지에 요트관광콘텐츠 개발과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 시설 조성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크루즈산업

- 충남 크루즈산업의 육성전략은 세 가지로, 첫째, 국내 중간기착지형의 크루즈 항구도시 개발이다. 충청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은 단기적 차원, 보령신항은 장기적 차원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위한 대표 크루즈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 크루즈 항만에는 숙박, 쇼핑, 관광여건 등의 종합적인 관광수용태세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둘째는, 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관광기반과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이다. 이에 따라서 대산항 국제관광 프라자를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편의시설과 외래 관광객 안내센터 설치, 충청남도 특산물매장 등 쇼핑센터와 휴게·휴식시설 등의 관광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셋째, 동북아 크루즈 기항 유치기반과 허브구축이다. 충남이 동북아의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크루즈 기착지로서의 운항을 위해서는 국제적 크루즈항만과 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통한 중부내륙권의 세종과 대전, 충남·충북에 국제수준의 관광기반과 쇼핑시설 등의 관광수용태세와 함께 크루즈 관광상품을 사전에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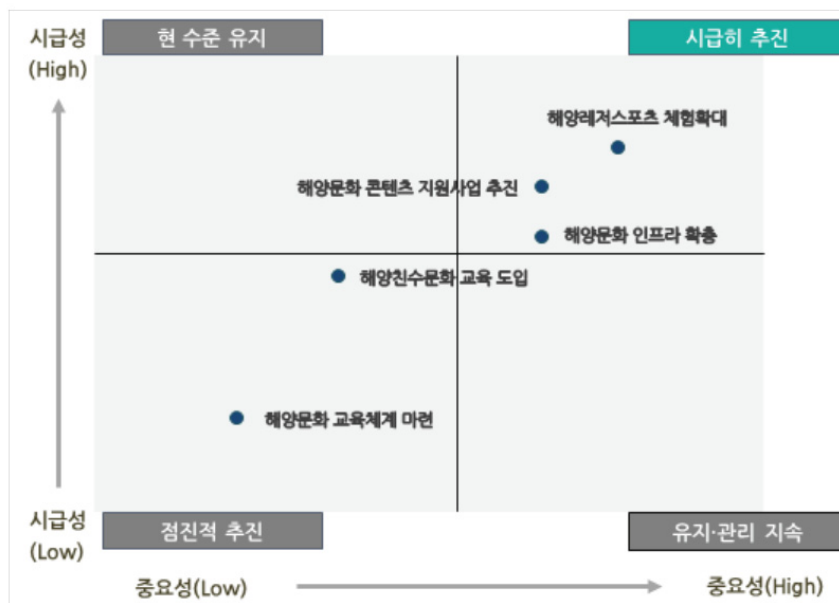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그림 11]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

5. 해양레저스포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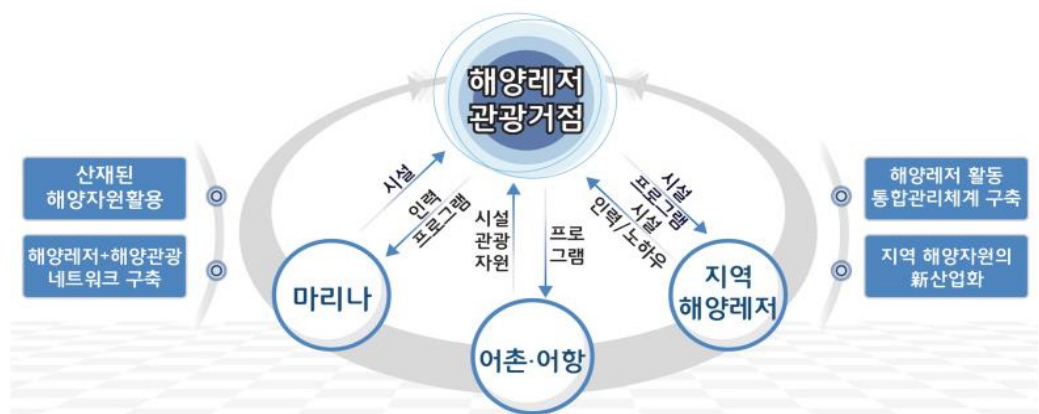
- 충남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육성전략은 세 가지로 첫째, 해양레저스포츠의 프로그램 확대이다. 따라서 태안과 보령 등에 요트 세일링, 보트 조종술 및 레저기구 제작 등 심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조종면허 취득과 연계한 사업을 충청남도과 시군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카약·카누·보트 등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 서핑, 웨이크 보드 등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입지가 적절한 연안지역에 운영토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자료 : 해양수산부(2019),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그림 12] 친수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

- 둘째, 해양레포츠 관련 제조사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충남의 해양레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레포츠와 관련한 제조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세일링 요트, 모터보트, 슈퍼보트 등 사업용 또는 개인 레저용 선박의 제조 사업을 지원해야한다.
- 셋째, 수중레포츠 관련 산업의 전략적 지원육성이다. 이를 위하여 수중레저 리조트 개발 사업 지원과 수중레저기구 제조업, 수중레저장비 제조업, 수중레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수중레저 운송사업과 수중레저활동 안내사업 등이 있는데, 이중 충남에서 수중레저스포츠 관련이 있는 적절한 지원 사업을 시·군에서 민간사업자와 연계·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자 료 : 관계부처 합동(2019), 해양레저관광활성화대책.

[그림 13]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20년 전략과제 '충남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전략'을 요약하고, 자료보완을 통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인배 · 권미정 · 조소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원/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iblee@cni.re.kr/mwhs@cni.re.kr/sojin8028@cni.re.kr

- 관계부처 합동(2019),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진흥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9), 해양레저관광활성화대책
- 관계부처 합동(2020),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추진방향
- 국토해양부(2008),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종화(2019), 충청남도 해양산업 혁신성장 방향
- 최일선·홍장원·이정아·장정인(2019),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 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 충청남도(2020),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해양레저가 뜬다 KMI 인포그래픽 제 18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크루즈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
- 해양수산부(2019), 국내 크루즈 기항지 관광객 입항 현황(항만별)
- 해양수산부(2019),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양수산부(2019),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 해양수산부(2019),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 해양수산부(2020),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 배재만(2019), 문대통령 “2030 해양신산업 11조원, 글로벌 해양부국으로”, 연합뉴스, 2019.10.10.일자.
- 이형주(2019),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충남도민 80% 찬성, 환경과 조경, 2019.10.17.일자.
- 해양수산부(2020),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20),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 2020.1.15.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20),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2020.7.16. 보도자료